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국민의힘 내부서도 큰 우려

유감 표명 민심 가라앉히기 역부족
이준석 "전두환 정치한 적 없다"
홍준표 "히틀러 시대도 찬양하나"
원희룡 "백배사죄 자세로 참회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과 관련해 거듭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이를 만에 유감 표명이라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성난 호남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유감 표명은 당 지도부의 우려 섞인 시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부터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오면서 호남 민심을 다독여왔던 당 지도부 내에서는 대선정국의 호남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이날 호남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취재진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했을 뿐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논란이 된 윤 전 총장 발언을 반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본인의 내심의 의도와 달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할지 헤아려 진중하게 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우회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부동산, 원전 정

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두둔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경쟁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역사 의식'을 물고 늘어졌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히틀러 시대 독일도 대단한 경제 발전이 있었던 때"라며 "그러면 윤 후보는 히틀러 시대도 찬양하나"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논평에서 "김사외급 후보의 특징인 건지, 무지해서 용감한 건지, 사과 없이 국민과 기 싸움을 하는 후보와 참모들 모습에 라치오에서 "정말 통탄하고 백배사죄의 자세로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본경선 무대에서 지역 확장성을 보여야 하는 윤 전 총장으로선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 기반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윤 전 총장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 발언을 계기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과 관련,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사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다.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고,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며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언이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물러섰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유감 표명'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할 때 "어찌 됐든 제가 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든지 그 말이 국민들에 전달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면, 그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V 토론 일정이 끝나면 (공주를) 바로 좀 방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답변하는 정의용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수조정소위 전남 국회의원 내정...광주 의원도 배정을

예결소위 광주 국회의원 차례
지역 예산확보 어려움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수조정소위 선정 과정에 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이 경쟁을 하면서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배정되는 차례이지만 전남지역으로 배정될 가능성 커지면서 사·도 국회의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

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인 감액·증액 권한을 갖고 있다.
예결특위가 '상임위 중의 꽃'이라던 예산안조정소위는 '꽃 중의 꽃'으로 불린다.
통상 이 과정에 예산 배정이 사실상 마무리되기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배정되지 않은 지역 예산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챙겨야 한다.
현재 민주당 9명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6명의 국회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되며 민주당에서는 맹성규(간사)·허영(강원·제주 몫)·김한정(경기)·강득구(경기)·정태호(서울)·전재수(부울경)·신영대(전북) 국회의원과 전남(미정)·충청(미정)지역 국회의원이 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종배(위원장)·이만희(간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제는 예산안조정소위 배정 과정에 광주지역이 아예 빠져있다는 점이다. 앞서 21대 첫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안호영 의원이 전북 몫, 전남이 지역구인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읍) 의원이 광주·전남 몫으로 배정됐다.
이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예산안조정소위 배정에 광주·전남의 순서에 따라 광주지역 의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 배정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한 국회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챙기기 위해서는 예산 배정 과정에 충분히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꼭 예산안조정소위에 충분히 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국회의원 국감서 학동참사 등 질의 돋보여

윤 '전두환 찬양' 규탄 한목소리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 정국 탓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등 정치적 이슈에 묻혀 국감 본연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학동참사 등 지역의 굵직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와 연구 환경 등을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전북 의원들이 국감기간 중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 발언을 규탄하는 등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상대로 모태펀드 광주 투자가 전국의 0.9%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문제를 거론하면서 법적 설치 의무 소화가 보급이 12%에 불과하다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병훈(동남읍)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부의 시니어관광 활성화 문제를 제기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카지노사업

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영덕(동남갑) 의원은 지방사립대의 방만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방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또 조오섭(북구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중인 예과도로 만타공항 운영권 사업 등 무리한 해외 투자를 질책했고, 승객 300명 태운 SRT 혼자 운전한 견습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꼬집었다.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광주학동 참사 수사 과정에 경찰이 몸통으로 지목된 문홍식씨의 해외 도피 제보를 묵살했다는 조함원의 증언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동안 부친상을 치르면서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국감을 이어가 귀감이 됐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문제를 거론했고, 수협 배합사료 의무화를 앞두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여수산단 내 부두의 채산율이 국내 주요 국가항만 대비 20~40배가 높은 것은 정부의 항만투자 불균형 탓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영길 '尹대통령 돼도 탄핵사유...檢 '고발사주' 빨리 결론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돼도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순준성 검사와 그 밑에 있는 두 분의 검사 3명이 조직적으로 김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건 국기문란이고 총선 개입이고 탄핵 사유"라며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후보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윤 후보에게) 사후·사전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가 사주범이 되는 것"이라며 "일단 공소처가 빨리 김용 의원과 순준성 검사를 소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끝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처음엔 안 나왔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며 "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고 총평했다.
/연합뉴스

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 신주 청약공고

■ 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 개요

- 발전소 위치: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078-4외 2필지(19,850㎡)
- 설비 용량: 2MW(주변에 태양광 발전소106.2MW 결합)
- 2019.07.10.: 전기사업 허가취득(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
- 2020.06.10.: 태양광 발전소 조성공사 착공
- 2020.10.28.: 사용전검사 완료
- 2020.10.31.: 전기사업 개시
- 2020.11.18.: 설비확인신청(2021.5.31 설비확인 완료, 가중치 1.009)
- 2020.11.25.: 개발행위준공
- 2021.06.02.: RPS 장기계약(중부발전 135,000원/(SMP+1REC))
- 태양광 모듈(국산) : 한화 420Wp*4,770장=2,003.4kW
- 특징 : 상업발전종이며 RPS 장기계약이 된 발전소로 안정된 수익보장

■ 추진배경

- 다수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창출 기회 제공
-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할 기회 제공

■ 청약자(수분양자) 수익예시(1인당 1,000만원 투자시)

- 내부수익률(IRR) 연 4.6% 정도로 투자수익률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큼
- 매년 유상감자+배당수익은 연평균 약 79만원 소득창출(세후 75만원)
- 배당 및 유상감자는 2022년도부터 매년 12월경 시행(총 20년간)

■ 신주 청약공고

1. 상호 : 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주), 주소 :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2. 회사가 발행한 주식 : 875주(증자완료후 회사발행 총 주식 300,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4. 청약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299,125주
 -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10,000원
 - 3)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 4) 청약자격 : 청약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전입한 만 30세이상 도민
 - 5) 청약증거금은 납기기준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기일로부터 납기일까지 이자 없음
 - 6) 청약기간 : 2021.11.01~11.03(11/3 17시까지) 내사 및 우편 도착분 유효
 - 7) 청약단위 : 신규청약자 1,000주(10,000,000원), 293명
기존 주주 875주(8,750,000원), 7명
 - 8) 청약한도 : 최대 1,000주(10,000,000원)/1인당
 - 9) 청약증거금 입금계좌 : 농협 351-1200-6345-83
예금주 : 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주)
- ▶ 청약증거금은 청약자 명의로 2021.11.03 17시 이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청약시 제출서류(등기 우편발송이나 분사 내사 제출)
 - ① 주식청약서 2부(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 양식은 제출처에 비치하되 가급적 내사해 기재 날인 하시고, 우측 양식을 올려서 사용 가능)
 - ②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표시) 사본 1부
 - ③ 부동산 임대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서 사본 1부
 - ④ 환불받은 실 은행계좌 사본 1부
- ▶ 제출처 :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23 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주)
- ▶ 청약관리 : 양일레퍼우사사무소(062-222-7337, fax 062-222-7336)
이병일실장(010-3642-5254 email : march121974@naver.com)

5. 배정 및 환불 안내

- 1)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발전소 주변 근거리자에 우선배정(영광군 백수읍 → 영광군 순으로)하고, 총발행 주식의 10% 초과 청약 미달 경우 청약 자격 주주지를 전라남도내로 확대하여 모집완료시 까지 재공고 합니다. (기 청약자에게는 재공고와 상관없이 주식 배정)
-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10% 미만 미달시 청약주식수로 배정하고,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 할 수 있습니다.
- 3) 주식청약서 제출과 청약증거금 납부가 되어야 청약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4) 청약 및 배정 결과는 2021년 11월 05일 광주일보에 공고합니다.
- 5) 청약증거금(환불금)은 청약 당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2021년 11월 05일 입금
- 6) 주금납입일 : 2021년 11월 05일(청약증거금을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7. 주금납입은행 : 주식회사신한은행 광주주점지점

신주 청약서

상 호	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000주
위 총 액	금 10,000,000원정
1 주 의 금 액	금 10,000원

귀 회사의 정관과 이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송납하고 위 주식을 청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주식청약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 번호 :

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귀중

상 호	도민제1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1 주 의 금 액	금 10,000원
신 주 식 의 종 류 와 수	보통주식 299,125주
신 주 식 의 발 행 가 액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납 입 기 일	2021년 11월 05일
납입금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광주주점지점
신 주 식 인 수 의 방 법	각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 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 주식은 이를 일반적으로부터 공모한다.
신 주 식 발 행 결 의 연 월 일	2021년 10월 14일